

김유영론 Ⅲ*

- 카프 복귀에서 「수선화」까지 -

현순영**

|| 차례 ||

- I. 서론
- II. 김유영, 카프 복귀에서 「수선화」까지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의 영화감독이자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가인 김유영의 활동을 추적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이다. 김유영이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 구인회에서 탈퇴할 때까지 벌인 활동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논한 선행 논문들에 이어 이 논문에서는 김유영이 구인회에서 탈퇴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벌인 활동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논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김유영은 1934년 5월 조선영화제작연구소 창립에 동참하면서 카프에 복귀했고 구인회에서 탈퇴했다. 그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전문가들과 함께 카프의 슬로건 아래서 각본 작성 등 영화 제작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구상을 조선영화제작연구소를 통해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유영은 신건설 사건에 연루되어 1934년 8월 검거되었다. 그 뒤 그는 지지(遲遲)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전향을 서약한 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35년 12월 석방되었다. 석방된 뒤 김유영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영화 잡지 출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영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107)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연출에 혼신을 다했다. 그러다가 『애련송』에 이어 『수선화』를 연출하던 중 1940년 1월 4일 지병인 신장염이 악화되어 타계했다.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벌인 활동은 그가 전향 서약을 기점으로 하여 계급주의에 봉사하는 영화 기술자에서 가치중립적인 영화 기술자로 선회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유영은 계급주의를 견지했을 때는 계급주의의 전파 수단인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쓸 것인지 고민했고, 전향을 서약하며 계급주의를 감추거나 버렸을 때부터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의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련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에 머무르려 했다.

주제어 : 김유영, 조선영화제작연구소, 카프, 신건설 사건, 전향, 영화보, 애련송, 수선화

I. 서론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영화감독이자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가 김유영(金幽影, 1908-1940)에 관한 연구는 애초에 구인회(九人會)의 결성 과정을 정확히 밝히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구인회의 결성 과정은 조용만의 구인회 회고담들을 통해 알려져 왔다. 조용만은 김유영, 이종명과 함께 구인회의 결성을 발의하고 도모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김유영에 관해 회고한 내용에는 모순되는 점들이 많았다. 특히 김유영이 카프(KAPF)에 반기를 들고 순수예술 쪽으로 돌아선 뒤 구인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언급은 석연치 않았다. 따라서 김유영의 생애와 활동을 추적하여 조용만이 회고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유영이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 구인회의 결성을 발의하고 도모할 때까지 벌인 활동을 추적하여 그가 구인회를 만들려고 했던 배경과 의도를 추론하는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 결과,¹⁾ 조용만의 회고는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김유영은 영화

계에 입문한 이후 구인회의 결성을 발의하고 도모할 때까지뿐만 아니라 구인회에서 탈퇴할 때까지도 순수예술 쪽으로 돌아서거나 한 일은 없었고 일관되게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유영이 그 뒤 타계할 때까지 벌인 활동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의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김유영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의 주요 국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의 시기는 조선의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이 와해되던 시기였다. 그런 만큼 그 시기 김유영의 활동을 추적하는 연구는 조선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의 마지막 국면을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영화인 김유영이 구인회와 같은 문학인 위주의 모임을 결성하려 했던 것은, 간단히 말해, 좋은 시나리오를 얻기 위해서였다. 즉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전문적인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감독을 연대케 한다는 것이 그가 구인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의도였다. 그 의도는 영화와 문학의 교섭을 피하려는 것이었던 동시에 어떻게 계급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출 것인가 하는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의 핵심적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이 와해되던 시기에 김유영이 벌인 활동을 추적하는 연구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한 대로, 김유영은 1930년대 문학과 영화의

1) 줄고, 『김유영론 1-영화계 입문에서 구인회 결성 전까지』, 『국어문학』 제54집, 국어문학회, 2013. 2.; 줄고, 『김유영론 2-구인회 구상 배경과 결성 의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6.

교류 양상, 일제강점기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의 전개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다. 김유영의 생애와 활동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밝혀 기술하는 일은 문학사 연구 또는 영화사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영의 생애와 활동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다룬 연구는 영화계에서도 국문학계에서도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별인 활동을 연구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 보탬으로써 문학사나 영화사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별인 활동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논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유영의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두루 찾아 정확히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김유영 연보와 그의 생애 및 활동을 다룬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오류들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제출된 김유영 연보와 그의 생애 및 활동을 다룬 논문들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연보>

이형우, 『김유영의 생활 연보』, 백기만 편, 『씨뿌린 사람들』, 사조사, 1959.
권영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관련 문인 약전-김유영』, 『한국 계급 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²⁾

『김유영 연보』, 『향토 문학 연구』제13호, 향토문학연구회, 2010.

<논문>

김수남, 『조선카프영화의 개척자-김유영의 영화예술 세계』, 『청예논총』제

2)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에 재수록.

- 15집, 청주대 예술문화연구소, 1998.
- 김종원, 「유실된 카프 영화의 상징-김유영론」, 『예술논문집』제45호, 대한
민국예술원, 2006. 12.
- 이강언, 「김유영의 삶과 영화 세계」, 『향토 문학 연구』제13호, 향토문학연
구회, 2010.
- 졸고, 「김유영론 1-영화계 입문에서 구인회 결성 전까지」, 『국어문학』제54
집, 국어문학회, 2013. 2.
- 이효인, 「카프의 김유영과 프로키노 사사겐주(佐々元十) 비교 연구-프롤
레타리아 영화운동론을 중심으로」, 『영화연구』57호, 한국영화학
회, 2013. 9.
- 졸고, 「김유영론 2-구인회 구상 배경과 결성 의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6.

이 논문에서는 위의 글들에서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
까지 벌인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특별히 눈여겨 읽고 그 중 잘못된 사항들
은 각주를 할애해 바로잡으려 한다. 김유영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축적
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선학들의 양해를 구한다.

II. 김유영, 카프 복귀에서 「수선화」까지

1. 조선영화제작연구소 창립과 카프 복귀³⁾

김유영은 1929년 9월 경 카프에 가입했고 1930년 4월 신흥영화예술가동

3) 김유영이 조선영화제작연구소의 창립에 동참하고 카프에 복귀한 일에 관해서는 졸고
「김유영론 2」에서 이미 다루었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
을 좀 더 정확히 고치고 간추려 제시한다.

맹(新興映畫藝術家同盟)에 대한 카프의 해체 권고에 불응하면서 카프에서 탈퇴했다.⁴⁾ 그런데 그는 그 뒤에도 계속 카프를 지지했고 카프의 슬로건 아래 영화공장 또는 영화 제작 단체를 만들려는 구상을 밝히곤 했다. 심지어 그는 카프에서 탈퇴한 뒤 결성한 구인회를 통해서도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전문적인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감독의 연대를 도모하고 조선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사실적·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는 시나리오를 위해 문인들과 연대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를 구인회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인회에서 탈퇴하고, 거의 동시에 카프에 복귀하기로 했던 것 같다.

김유영은 1934년 5월 2일 이전 조선영화제작연구소(朝鮮映畫製作研究所)의 창립에 동참하면서 카프에 복귀했다. 다음은 조선영화제작연구소의 창립을 알리는 기사들 중 하나다.

朝鮮映畫의 眞實한 發展을 圖謀하고 眞正한 藝術的인 映畫製作을 目標로 하여 今般 左記 諸氏가 朝鮮映畫製作研究所를 組織하고 臨時事務所를 市內 勸農洞 九五番地에 두고 活動 中이라 한다.

庶務財政部：金泰植, 全裕協 / 製作研究部：朴完植, 全平 / 脚本部：羅俊英, 金哲 / 監督部：金幽影, 朴哲民 / 演技部：羅雄, 金光, 朴淳돈, 李貴禮, 崔玉희 / 美術部：朴振明 / 撮影部：金泰榮, 全平

(『朝鮮映畫製作研究所 創立』, 『동아일보』, 1934. 5. 2.)

4) 김유영이 카프에서 탈퇴한 경위는 좋지, 「김유영론 1」 참조. 이강언은 김유영이 1934년 4월에 카프에서 탈퇴했다고 잘못 썼다. 이강언, 「김유영의 삶과 영화 세계」, 『향토문학 연구』 제13집, 향토문학연구회, 2010, p.69.

이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먼저, 전평·나웅·박철민의 본명이 각각 전유협·나준영·박완식이고 김철은 김유영의 또 다른 가명이라는 사실이다.⁵⁾ 다음으로, 당시 전유협, 나준영, 박완식은 카프 영화부를, 박진명은 카프 미술부 임시사무국을 막 맡은 상태였다는 사실이다.⁶⁾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여 위의 기사를 보면, 조선영화제작연구소는 카프계의 조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시 카프 영화부 또는 미술부의 주요 인물들이 조선영화제작연구소의 모든 부서에 포진한 셈이었다. 김유영은 각본부와 감독부를 맡으면서 조선영화제작연구소의 창립에 동참했는데, 그것은 그가 카프로 복귀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유영은 조선영화제작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오랜 구상과 의도를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영화제작연구소는 영화 제작의 각 단계를 맡는 부서들이 연대하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특히 조선영화제작연구소에는 각본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조선영화제작연구소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전문가들이 카프의 슬로건 아래서 각본 작성 등 영

5) 권영민은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촉발된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의 전말, 공판 기록 최초 공개』(『문학사상』, 1998. 6, pp.39-77)에서 신건설 사건에 관해 처음으로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그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던 신건설 사건 일심 판결문과 복심 판결문을 최초로 발굴·번역하여 그 글에 전재함으로써 신건설 사건 연구 또는 카프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 그 뒤 그는 그 글을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문예출판사, 1998, pp.292-338)에 포함시키면서, 1935년 『동아일보』에 전재되었던 신건설 사건 예심 결정서를 풀어써서 삽입하는 등, 보완·수정한다.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의 내용은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p.346-400)에 재수록되었다. 권영민이 세 논저에 실은 신건설 사건 일심 판결문에서 전평, 나웅, 박철민, 김유영의 이름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김유영은 본명이 '김영득'이고 '김철'이라는 또 다른 가명을 썼다.

6) 1934년 2월 10일 조선프로예맹 중앙위원회 토의 사항 중 부서 정리에 관한 내용 참조.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p.423.

화 제작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모양새로 조직되었다. 그 모양새는 김유영의 오랜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신건설 사건과 전향 서약

신건설(新建設) 사건은 이른바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으로서, 일제 당국이 1934년 5월부터 1936년 4월까지 카프 산하 극단 신건설의 관계자들과 카프 관계자들을 검거하여 그 중 23명을 기소하고 재판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카프 해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⁷⁾

그런데 신건설 사건의 발단 경위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다. 예컨대, 권영민은 백철의 회고록⁸⁾ 근거로 삼아 신건설 사건은 카프 산하 극단이었던 신건설이 레마르크[Eric Maria Remarque] 원작, 무라야마[村山知義] 각색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가지고 창립 공연을 한 뒤 지방 순회공연을 하던 중 전주에서 당국이 공연 선전 전단 문구의 불온성을 문제 삼아 신건설의 관계자들을 검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⁹⁾. 그러나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¹⁰⁾ 신건설 사건의 발단 경위는 백철의 회고와는 다르다.

1934년 5월 전북 금산경찰서는 금산에서 학생 독서회의 결성을 주동하던 선린상업학교 학생 조권형을 검거해 취조한다. 그 과정에서 조권형이 (신건설 관계자라는 사실과) 서울에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이자

7) 신건설 사건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들을 참고했다. 권영민, 앞의 논저들.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 논리 연구』, 『영화연구』45호, 한국영화학회, 2010.

8) 백철,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pp.300-303.

9) 권영민, 앞의 논저들. 이효인도 신건설 사건의 발단에 관해 “1934년 신건설사의 전주 공연을 빌미로 검거가 시작되어”라고 잘못 썼다. 이효인, 앞의 글, p.392.

10) 『“갸꾸” 中心 運動을 非合法으로 看做, 大部分이 “갸꾸 멤버와 緣故者”, 『조선일보』, 1935. 1. 15. 『錦山署에서 左翼 青年 取調 中에 端緒 捕捉』, 『조선중앙일보』, 1935.

10. 27. 『發覺 原因은 “갸꾸렛트” 一卷』, 『매일신보』, 1935. 10. 29.

신건설의 관계자인 정병창, 조용립 등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신건설의 배후에 카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금산경찰서는 곧 사건을 전북경찰부에 의뢰하고 전북경찰부는 신건설 관계자와 카프 관계자들을 전국에서 검거해 들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신건설 사건의 발단 경위다.

김유영은 조선영화제작연구소를 창립하여 카프에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건설 사건에 연루된다. 지금부터, 김유영이 신건설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된 뒤 형을 선고 받기까지의 과정을 간추린 뒤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1934. 8. 26. - 김유영, 검거됨.¹¹⁾

1934. 8. 28. - 김유영, 전북으로 압송됨.¹²⁾

1935년 1월 25일 - 김유영, 전주지방법원에 송치됨.¹³⁾

1935년 6월 28일 : 예심종결, 23명 공판 회부 결정 - 김유영, 공판에 회부됨.¹⁴⁾

1935년 10월 28일 : 1회 공판(사실 심리)¹⁵⁾ - 김유영, 심리 받음¹⁶⁾.

1935년 11월 11일 : 2회 공판(사실 심리)¹⁷⁾ - 김유영, 심리 받음¹⁸⁾.

11) 「左翼 文人 層의 檢舉 全面的으로 擴大 形勢」, 『조선일보』, 1934. 8. 27. 이형우는 김유영이 1933년 11월 ‘비밀결사 사건’으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잘못 썼다. 이형우, 『김유영의 생활연보』, 백기만 편, 『씨뿌린 사람들』, 사조사, 1959, p.234. 줄고, 『김유영론 2』에도 김유영이 1934년 6월에 검거·수감되었다고 잘못 적혀 있다.

12) 「映畫를 通하여 赤色思想을 宣傳」, 『매일신보』, 1934. 8. 28.

13) 「“新建設社” 檢舉 事件 書類와 함께 送局」, 『매일신보』, 1935. 1. 26.

14) 「新建設社 事件 關係 廿二名 公判 廻附, 예심 종결로 이십팔일 결정」, 『매일신보』, 1935. 6. 29. 이형우는 예심 시기를 1934년이라고 잘못 썼다. 이형우, 앞의 글, p.235.

15) 「“新建設” 事件 公判, 朴英熙부터 審理 開始」, 『동아일보』, 1935. 10. 29. 「前例 업는 嚴戒裡에 “新建設社” 公判 開廷, 二十八日 全州地方法院에서」, 『매일신보』, 1935. 10. 29. 「“카프” 首腦 등 如出一口 實踐運動을 否認」, 『조선일보』, 1935. 10. 29. 「森嚴한 警戒 중에 廿三名 全部 出廷」, 『조선중앙일보』, 1935. 10. 29(석간).

16) 「被告 大概是 審問, 次回は 來十一日, 新建設社 事件 公判」, 『조선일보』, 1935. 10. 29.

1935년 11월 22일 : 3회 공판(사실 심리)¹⁹⁾ - 최정희 심리 과정에서 김유영
도 심리 받음²⁰⁾.

1935년 11월 25일 : 4회 공판(구형 및 변론)²¹⁾ - 김유영, 징역 2년 구형됨²²⁾.

1935년 12월 9일 : 선고 공판 - 김유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됨.²³⁾

1935년 12월 16일 - 김유영, 석방됨.²⁴⁾

김유영은 1934년 8월 26일에 검거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8일 전복으

- 17) 『新建設 事件 續行 公判, 昨日에 事實 審理』, 『동아일보』, 1935. 11. 12. 『朴英熙
等 七名 審理, 新建設 事件 第三回 公判 開廷』, 『조선일보』, 1935. 11. 12. (“第二回”
를 “第三回”라고 잘못 표기함) 『廿三被告 異口同聲 合法 運動을 主張, “푸로” 藝盟
事件 第二回 公判』, 『조선중앙일보』, 1935. 11. 12.
- 18) 『朴英熙 等 七名 審理, 新建設 事件 第三回 公判 開廷』, 『조선일보』, 1935. 11.
12. (“第二回”를 “第三回”라고 잘못 표기함) 『廿三被告 異口同聲 合法 運動을 主張,
“푸로” 藝盟 事件 第二回 公判』, 『조선중앙일보』, 1935. 11. 12.
- 19) 『푸로 藝盟 公判, 權煥 等 六名 審理』, 『조선중앙일보』, 1935. 11. 23.
- 20) 『被告들은 거의 全部 思想 轉向을 表明』, 『매일신보』, 1935. 11. 24.
- 21) 『被告 審理 完了, 求刑은 廿五日』, 『조선일보』, 1935. 11. 23. 『新建設社 事件 最高
二年 求刑』, 『동아일보』, 1935. 11. 26. 『朴英熙, 尹基鼎 等 最高 三年役 求刑』, 『매일
신보』, 1935. 11. 26. 『無意識의 行動, 實刑 求刑은 過重』, 『매일신보』, 1934. 11. 26.
- 22) 『朴英熙, 尹基鼎 等 最高 三年役 求刑』, 『매일신보』, 1935. 11. 26. 『新建設 事件
最高 三年役 求刑』, 『조선일보』, 1935. 11. 26. 『푸로藝術同盟 事件, 最高 三年을
求刑』, 『조선중앙일보』, 1935. 11. 26. 권영민은 4차 공판에서 김유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고 잘못 썼다. 권영민, 앞의 논저들.
- 23) 『新建設社 事件, 大部分 執行猶豫』, 『매일신보』, 1935. 12. 10. 『新建設 事件 廿三
名, 廿名은 執行猶豫』, 『조선일보』, 1935. 12. 10. 『“카프” 事件 判決 言渡, 大部分
執行猶豫』, 『조선중앙일보』, 1935. 12. 10. 권영민은 선고 공판에서 김유영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고 잘못 썼다. 권영민, 앞의 논저들. 단, 그가
발굴해 번역·소개한 신진설 사건 일심 판결문에는 김유영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참고, 『김유영론 2』에는 김유영이 1936년 2월에 징
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잘못 적혀 있다.
- 24) 『十二名 昨夜에 出監, 十七日에 각각 高향으로』, 『매일신보』, 1935. 12. 18. 『新建設
事件 判決 後報』, 『조선일보』, 1935. 12. 17. 이형우는 김유영이 1935년 10월 이전에
출감했다고 잘못 썼다. 이형우, 앞의 글, p.236.

로 압송되었다. 당시 김유영의 혐의는 카프의 별동대인 조선영화제작연구소를 만들어 대중에게 ‘주의’를 표현하는 영화를 제작하려 했다는 것이었다.²⁵⁾ 그런데 예심 과정에서 김유영에게 부여된 혐의는 카프에 가입한 것과 이동식소형극장(移動式小型劇場)을²⁶⁾ 조직한 것이었다. 『신건설 사건 예심 종결서』에는 카프와 이동식소형극장이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결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김유영이 그런 결사에 가입한 것과 그런 결사를 조직한 것은 모두 치안유지법 제1조 제2항에 저촉되며, 카프 가입과 이동식소형극장 조직은 연속 범행이므로 형법 제55조에 저촉된다고 적시되어 있다.²⁷⁾

신건설사 사건 공판은 예심 종결 넉 달 뒤인 1935년 10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두루 살펴보면 김유영은 1, 2, 3회 공판에서 모두 심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유영에 대한 심리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1회 공판에서 김유영이 발언한 내용과 3회 공판에서 이루어진 김유영에 대한 심리 내용의 편린만 볼 수 있을 뿐이다. 한 신문은 1회 공판에서 김유영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옮겼다. “김영득은 문예에도 예술에도 실천적 리론은 갖지 안하였다 다만 영화 기술자로서 활동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²⁸⁾ 또 다른 신문은 3회 공판에서 김유영의 부인이었던 최정희가 극단 신건설과 관계가 있는지 심리

25) 『映畫를 通하여 赤色思想을 宣傳』, 『매일신보』, 1934. 8. 28. 김종원은 김유영이 신건설 조직에 참여한 것 때문에 검거되었다고 잘못 썼다. 김종원, 『유실된 카프의 상징-김유영론』, 『예술논문집』 제45호, 대한민국예술원, 2006, p.286.

26) 『移動式小型劇場 創立』, 『동아일보』, 1932. 11. 14.

27) 1935년 7월 2, 3일자 『동아일보』에 『신건설 사건 예심 종결서』 전문이 2회로 나누어 실렸다. 권영민은 앞의 논저들에서 『신건설 사건 예심 종결서』가 『동아일보』에 실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그는 게재일을 1935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라고 잘못 썼다.

28) 『被告 大概是 審問, 次回は 來十一日』, 『조선일보』, 1935. 10. 29.

하는 과정에서 김유영도 심리했다고 보도했다.²⁹⁾ 피고인들이 최정희는 신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장이 김유영과 최정희에게 사상이 일치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심문했다는 내용이다.³⁰⁾

1935년 11월 25일 제4회 공판에서 김유영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된다. 이어서 1935년 12월 9일 선고 공판이 열렸고 김유영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권영민이 발굴·번역한 신건설 사건 일심 판결문에는 김유영이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식소형극장을 조직한 것, 같은 목적의 카프에 가입한 것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며 카프 가입과 이동식소형극장 조직은 연속 범행이므로 형법 제55조 제10항에 해당되나 전항을 서약하였으므로 형법 제25조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선고 공판 일주일 뒤인 1935년 12월 16일에 김유영은 석방되었다.

신건설 사건의 피고인들이 거의 모두 그랬듯이 김유영도 재판 과정에서 전항을 서약했다. -전항 서약문 같은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 그의 전항 서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하려면 먼저 당시 치안유지법과 전항제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³¹⁾

29) 「被告들은 거의 全部 思想 轉向을 表明」, 『매일신보』, 1935. 11. 24.

30) 권영민은 앞의 논저들에서, 논거를 밝히지는 않고, 김유영이 공판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도 했다. “김유영은 영화에 관한 서적은 읽은 적이 있으나 좌익 서적은 읽은 일이 없으며, 자기는 카프에 들기 전에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런 지식도 갖지 아니하였으나 카프에 가입된 후로 다소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31)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전항제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저들을 참고했다.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77-226. 이수일, 『일제말기 사회주의자의 전항론-인정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제7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8. 이효인·김정호, 『카프 영화인 서광제의 전항 논리 연구』, 『한민족문화연구』제30집, 2009.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항 논리 연구-서광제, 박완식을 중심으로』, 『영화연구』45호, 한국영화학회, 2010. 리차드 H. 미첼 저·김유식 역,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일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런 결사에 가입하는 것을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의도하는 행위로 간주했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國體)를 변혁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본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교하게 다듬어지던 법으로서 신건설 사건 당시에는 전향 제도와 결부되어 집행되었다. 전향 제도는 치안유지법에 의해 처벌 받을 피고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거나 포기하겠다고 전향을 서약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였다. 그것은 사실 집행유예를 미끼로 사상범들을 회유하여 사상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자 사상범들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신건설 사건의 재판에서도 일제는 피고인들에게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판결하는 동시에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전향을 서약하자 그들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유영도 전향을 서약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김유영이 전향 서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제도를 이용해 형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전향을 서약했을 것이다.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에 대한 김영희의 논의는³²⁾ 김유영이 전향 서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 다른 이유들을 추론 가능케 한다. 김영희는 일제 당국의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 사상가들의 주된 전향 동기가 ‘시국인식(時局認識)’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시국인식’이란 만주사변·중일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일제의 국력에 대한 인식으로서 일제에 대한 굴복과 독립에 대한 절망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pp.1-267.

32) 김영희, 위의 책, p.181.

는 전향을 체포·구금이라는 외부적 강제 속에서 일제에 대한 패배의식에 의해 일어났던 현상으로 설명한다. 또, 전향자의 의식구조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힘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여기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김영희의 논의를 참조하면, 김유영도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일제의 국력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패배의식으로 전향을 서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전향 서약 뒤의 활동

김유영은 전향을 서약하고 석방된 뒤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그 활동들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936. 12. 24·25·27. 『영화서신(映畫書信) (1-3)』을 『조선일보』에 발표.
- 1937. 1. 19. 경성촬영소에서 제작한 『오몽녀』에 대한 합평회를 안석영, 서광제 등과 함께 개최.³³⁾
- 1937. 8. 24·26-28. 단편 시나리오 『백란기(白蘭記)』를 『동아일보』에 발표.
- 1937. 8. 서광제, 유치진, 서항석, 정래동, 이무영과 함께 동아일보 영화소설 현상공모 응모작 최후심사.
- 1937. 11. 영화 잡지 『영화보(映畫報)』 창간.
- 1937. 10. 23-1939.6. 영화 『애련송(愛戀頌)』 연출.
- 1938. 11.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인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영화제의 위원으로 활동.³⁴⁾

33) 『“五夢女” 合評會』, 『매일신보』, 1937. 1. 20.

34)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영화제의 준비위원은 李明雨, 吳榮錫, 李信雄, 李龜永, 尹默, 金幽影, 徐丙珏, 李基世, 安鍾和, 孫勇進, 金正革, 金兌鎮, 尹逢春이었다. 『第一回映畫祭, 展覽會와 上映會 等 銀幕界 初有 盛典, 來廿六, 七, 八日 三日間 開催할 朝鮮 映畫史 “立體圖解”』, 『조선일보』, 1938. 11. 9. 안중화는 이들 중 이명우의 발의로 영화제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안중화, 『처음 개최된 영화제의 이모저모』,

1939. 11. 20. 영화 『수선화(水仙花)』 연출 시작.

이 활동들 중에서도 김유영이 지속적으로 주력했던 것은 영화 잡지 출판과 영화 연출이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활동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1) 『영화보』 창간

김유영이 석방된 뒤에 영화 잡지를 출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가 많이 발견된다. 휴간 중이던 『영화시대(映畫時代)』를 김상혁(金相赫)과 함께 인수하여 속간한다는 기사,³⁵⁾ 월간 『영화작가(映畫作家)』 창간에 참여한다는 기사,³⁶⁾ 월간 『영화보(映畫報)』의 창간을 발의하고 편집위원으로 창간에 참여한다는 기사³⁷⁾ 등이다.

그런데 『영화시대』는 김유영의 의해 속간되지 않았고³⁸⁾, 『영화작가』의 창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영화보』는 1937년 11월에 창간되었다. 발행인은 김정혁(金正革)이었다. 편집 책임은 김정혁과 유영삼이 맡았고 그 둘 외의 편집위원은 김유영(감독), 안중화(감독), 이규환(감독), 박기채(감독), 안석영(감독), 서광제(영화평론가), 양세웅(촬영 기사), 이효석(시

『한국영화측면비사』, 현대미술사, 1998, pp.258-260. 그런데 이강언은 이 영화제가 김유영의 발의로 개최되었다고 잘못 썼다. 이강언, 앞의 글, p.69. 또, 『김유영 연보』(『향토문화연구』제13호, 향토문화연구회, 2010, p.118)에는 김유영, 이규영, 이명우, 김태진, 안중화 등이 영화제의 발기인이었다고 잘못 적혀 있다.

35) 『學藝 消息, “映畫時代” 續刊』, 『매일신보』, 1936. 8. 8.

36) 『씨나리오 文學研究者 數氏 月刊 雜誌 “映畫作家” 創刊』, 『동아일보』, 1937. 6. 3.

37) 『映畫雜誌 “映畫報” 出版』, 『동아일보』, 1937. 10. 29.

38) 『映畫雜誌 “映畫時代” 續刊』, 『동아일보』, 1937. 11. 7. “過去 六七年 間 우리 映畫 界에 만한 貢獻이 잇는 映畫月刊雜誌 『映畫時代』는 오랫동안 休刊 中에 잇었는데 最近에 二前 主幹 金幽影氏의 諒解를 얻어서 朴0越氏가 責任을 지기로 하고 不遠間 出版하리라 한다. 그 編輯 事務所는 京城府 勸農町 一七三番地에 잇다”

나리오 작가)이었다.³⁹⁾ 『영화보』는 제2집까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집은 영인본으로나마 볼 수 있고,⁴⁰⁾ 제2집은 발간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⁴¹⁾

『영화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영화보』는 영화 관련 잡지가 전무하던 때에 창간되어 영화계의 출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당시 독자들도 그런 점에서 『영화보』의 창간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다음으로, 『영화보』는 영화 제작에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감독, 촬영 기사, 시나리오 작가들이 편집위원을 맡았다는 사실과 제1집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보』 제1집에 실린 서광제의 「프로듀서론」, 박기채의 「조선 영화 이상론」, 한인택의 「영화 원작과 현실성」, R.Y.S의 「촬영소의 조직과 기획 과정」⁴³⁾ 등은 영화 제작에 관련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김유영은 『영화보』 제1집에 글을 신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영화 관련 잡지가 전무하던 때에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영화 전문지 『영화보』의 창간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그가 당시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시사한다.

39) 『映畫雜誌 “映畫報” 出版』, 『동아일보』, 1937. 10. 29.

40) 『영화보』 제1집, 1937. 11.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3-영화·연극 잡지』, 소명출판, 2013, pp.1-102.)

41) 『新刊紹介』, 『동아일보』, 1937. 12. 28.

42) 孔鎬, 「“映畫報” 出版을 듣고」, 『동아일보』, 1937. 11. 6.

43) R.Y.S는 유영삼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의 글, 「촬영소의 조직과 기획 과정」에서는 공교롭게도 김유영이 「映畫街에 立脚해야 (1-6)」(『동아일보』, 1931. 3.26-29·4.3·5), 「映畫村 風景-撮影 監督의 立場으로서」(『조선일보』, 1933. 5. 28) 등에서 피력했던 영화 제작의 기술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엿보이기도 한다.

2) 『애련송』과 『수선화』 연출

1936년 여름, 동아일보사는 상금 이백 원을 걸고 ‘영화소설’을 공모한다.⁴⁴⁾ 공모 광고에는 공모 대상인 영화소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재래의 “영화소설”과는 다른 “일종의 영화소설” 즉 “영화와 문학과 의 유기적 종합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독물(讀物)”, “지상에 게재하면 ‘읽는 영화’가 되고 다소의 씨나리오적 각색을 더하면 곧 촬영 대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광고에는 공모작의 내용과 길이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전조선(全朝鮮) 저명한 승경고적(勝景古蹟)을 되도록 많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되 이야기의 구성을 흥미 있고 무리 없이 할 것(승경고적에 얽힌 로맨스를 더러 숨써 잇게 끌어 엮고 또 유모러스한 장면을 가끔 재미나게 섞어 너허 주었으면 조켓다.)”⁴⁵⁾

애초에 동아일보사는 영화소설 공모 마감일을 1936년 10월 말일로 정했었다.⁴⁶⁾ 그런데 정작 공모는 1937년 7월 말일에 마감되었다.⁴⁷⁾ 공모 마감 이 늦춰진 이유는 『동아일보』가 이른바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정간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⁸⁾ 정간 기간은 1936년 8월 29일부터 1937년 6월 2일까지였다.⁴⁹⁾

『동아일보』가 속간되면서 영화소설 공모도 계속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44) 김종원은 상금 액수를 “1만원”이라고 잘못 썼다. 김종원, 앞의 글, p.286.

45) 『藝術의 新境地를 開拓하라, 映畫小說 懸賞公募』, 『동아일보』, 1936. 7. 28. 같은 광고가 『동아일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실렸다.

46) 위의 글.

47) 『本社 公募 映畫小說 應募作品 百餘 篇』, 『동아일보』, 1937. 8. 4.

48) 위의 글.

49) 채백, 『일장기말소사건』, 『신문』, 대원사, 2003, pp.140-143. ‘동아일보 기사DB-미발행일 정보’, “dongA.com”, <http://www.donga.com/news/dongadb/dongailbo_db_25.html>, 검색:2015. 6. 29.

에는 공모 대상이 재래의 영화소설과는 다른 “일종의 영화소설”임을 재차 강조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 기사에서 “일종의 영화소설”을 “읽는 영화”라고 바꿔 지칭하며 상술한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나리오 문학이라는 문학의 한 새로운 “잔루(장르-인용자)”의 성립이 가능함을 믿는 자이다. 그것이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조건이어니와 동시에 이것이 문학인 이상 문자로써 표현되는 때에 영화가 가진 합중(合種)의 표현 수단에 입각하여 영화적 이메-지름 독자의 머리속에 그리어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이메-지임을 잊고 문학을 통하여 직접 현실의 세계를 자기의 속에 재현시키게 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도 아니오 소설도 아니오 희곡도 아닐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결출한 씨나리오는 소설의 형식을 취해야”라 한 에이젠슈타인 류의 결론은 틀린 것이어니와 종래 우리 문단에는 아직 영화의 표현 수단과 약속에 대한 지식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관계로 본격적인 씨나리오는 독자를 거이 가질 수가 없었었고 오직 소설형으로 된 영화적인 독물(讀物)이 영화소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독자와 친해왔었다. 그러므로 그 관례를 인용(仍用)하여 우리도 잠깐 우리의 공모물을 “일종의 영화소설”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생경한 대로 “읽는 영화”라 하는 것이 도리어 조문(詔文)한 본의에 가까울까 하는 감도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본사 공모 중의 영화소설은 재래의 영화소설은 아니오 새로 창조될 한 개의 문학 형식이다.⁵⁰⁾

이 설명을 풀어 이해하면, “읽는 영화”는 영화의 표현 수단을 숙지하고 적용해 써야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영화의 표현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읽는 영화”는 문자를 매개로 하는 문학이기도 하므로 독자가 읽고 직접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도 해야 한다. “읽는 영화”는 새로운 문예양식(장르)인 것이다.

50) 『本社 公募 中인 映畫小說에 對하여』, 『동아일보』, 1937. 6. 19.

공모 기간이 결과적으로 길어졌던 만큼 응모작은 100여 편에 이르렀다.⁵¹⁾ 동아일보사는 4차의 예선을 통해 응모작 중 5편을 추렸다.⁵²⁾ 그리고 영화계의 김유영·서광재, 문단의 유진오(불참)·유치진, 사측의 서항석·정래동·이무영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최후심사회를 열고 5편 중 1편을 뽑았다.⁵³⁾ 당선작은 신인 최금동(崔琴桐)의 「환무곡(幻舞曲)」이었다.⁵⁴⁾

「환무곡」은 “애련송(愛戀頌)”으로 개제되어 『동아일보』에 1937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0회 연재되었다⁵⁵⁾. 「환무곡」 즉 「애련송」의 형식은 그야말로 그전 영화소설들과는⁵⁶⁾ 달랐다. 그전 영화소설들은 형식이 일반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애련송」은 시나리오에 가까웠다.⁵⁷⁾ 그리고 연재 형식도 달랐다. 그전 영화소설들은 일반적인 신문소설들처럼 삽화와 함께 연재되었는데 「애련송」은 실사(實寫)의 스틸과 함께 실렸다.⁵⁸⁾ 스틸은 극예술연구회(이하 극연) 영화부가 맡았다⁵⁹⁾.

51) 「本社 公募 映畫小說 應募作品 百餘 篇」, 『동아일보』, 1937. 4.

52) 「總 應募 百餘 篇 中 豫選 入選이 五篇」, 『동아일보』, 1937. 8. 31.

53) 「映畫界 文壇人 招請 最後審査會를 開催」, 『동아일보』, 1937. 8. 31.

54) 「朝鮮 시나리오 文學의 魁-力作 “幻舞曲” 當選」, 『동아일보』, 1937. 8. 31.

55) 「懸賞 映畫小說 當選 “愛戀頌”(“幻舞曲” 改題)」, 『동아일보』, 1937. 10. 1. 崔琴桐, 「愛戀頌(1-50)」, 『동아일보』, 1937. 10. 5-12. 14.

56) 최금동의 「愛戀頌」 이전에 신문에 실렸던 영화소설들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김일영, 「森林에 囁言」, 『매일신보』, 1926. 4. 4-5. 16. 김일영, 「山人의 悲哀」, 『매일신보』, 1926. 12. 5-1927. 1. 30. 이종명, 「流浪」, 『중외일보』, 1928. 1. 5-25. 김팔봉, 「前導揚揚」, 『중외일보』, 1929. 9. 27-1930. 1. 23. 등.

57) 「애련송」이 “읽는 영화”로서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애련송」의 형식과 당시 신문에 실렸던 다른 문예양식들 즉 소설·(재래의)영화소설·시나리오의 형식을 면밀히 비교·대조해 보아야 한다. 또, 당시에 각 문예양식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58) 1937년 『동아일보』에는 “여인부락”이라는 난(欄)에 단편 시나리오들이 스틸과 함께 연재되기는 했다.

59) 「懸賞 映畫小說 當選 “愛戀頌”(“幻舞曲” 改題)」, 『동아일보』, 1937. 10. 1.

「애련송」이 『동아일보』에 연재되는 가운데 극연은 동아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그 작품을 영화화하기로 하고 1937년 10월 23일 촬영을 시작한다.⁶⁰⁾ 극연은 1937년 6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영화부를 설치하여 영화 제작에 착수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⁶¹⁾. 그리하여 첫 작품으로 선택한 것이 「애련송」이었다. 극연은 김유영과 양세웅을 초빙해 영화부에 가입시키고⁶²⁾ 각각 「애련송」의 연출과 촬영을 맡겼다.⁶³⁾ 그런데 극연은 「애련송」을 촬영하던 중 1938년 3-4월에 일제의 강압으로 해체되고 “극단극연좌(劇團劇研座, 이하 극연좌)”로 개편된다.⁶⁴⁾ 「애련송」의 촬영은 극연좌가 승계한다⁶⁵⁾.

60) 「本社 當選 映畫小說 “愛戀頌” 撮影 開始」, 『동아일보』, 1937. 10. 29. 「全發聲 八卷物, 劇研 會員 總出動」, 『동아일보』, 1937. 10. 29. 다음 글에는 「애련송」 촬영이 193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두현·유민영, 『극예술연구회 연보(1931-1939)』, 『연극평론』5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1971, p.78.

61) 「東西南北」, 『동아일보』, 1937. 6. 19. 「風聞과 事實, 劇藝術研究會, 每月 公演을 標榜터니 六月 休演에 風說이 區區」, 『동아일보』, 1937. 6. 24. 「風聞과 事實, 劇藝術研究會, 一大 飛躍을 앞두고 質的 向上을 企劃, 柳致眞氏 談」, 『동아일보』, 1937. 6. 24. 이두현·유민영, 위의 글, p.78.

62) 『영화보』제1집, 1937. 11, p.36.(『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3-영화·연극잡지』, 소명출판, 2013, p.34) 「김유영 연보」(『향토문학연구』제13호, 향토문학연구회, 2010, p.118)에는 김유영이 신건설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뒤 대구 본가에서 정양중이던 1935년 10월에 극예술연구회 영화부에 가입했다고 잘못 적혀 있다. 김유영은 1935년 12월에 석방되었고 1937년 6월 이후 극예술연구회 영화부에 가입했다.

63) 「全發聲 八卷物, 劇研 會員 總出動」, 『동아일보』, 1937. 10. 29. 「“愛戀頌” 製作關係者 一人一言」, 『동아일보』, 1939. 6. 30. 등. 김수남은 김유영이 오랜 침묵 끝에 「수선화」의 메가폰을 잡았다고 잘못 썼다. 김수남, 「조선 카프 영화의 개척자 김유영의 영화예술 세계」, 『청예논총』제15집, 청주대 예술문화연구소, 1998, p.141. 김종원도 “애련송”를 “수선화”라고 잘못 쓴 곳이 있다. 김종원, 앞의 글, p.286.

64) 「劇藝術研究會를 “劇演座”로 改名, 宣言書도 發表」, 『매일신보』, 1938. 4. 15. 이두현·유민영, 앞의 글, p.78.

65) 「劇研 映畫部 作品 “愛戀頌” 近日 完成」, 『매일신보』, 1938. 6. 27. 등.

극연은 애초에 『애련송』을 1937년 11월 중에 완성하고 1938년 1월 초에 개봉할 계획이었다.⁶⁶⁾ 그러나 앞서 얘기한 극연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애련송』의 완성은 지연되었다. 『애련송』은 1939년 6월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고 1939년 6월 27일 명치좌에서 개봉되었다.⁶⁷⁾

영화 『애련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⁸⁾

제작 책임:서항석 / **원작:**최금동 / **각색:**이효석⁶⁹⁾ / **대사:**유치진 / **연출:**김유영 / **촬영:**양세웅 / **음악:**홍난파 / **미술:**강성범 / **자막:**최일송 / **조명:**이상남 / **동시녹음:**조선영화주식회사, 일본에서도 동시녹음 작업을 함 / **의상:**백상회(白商會) / **배역:**문예봉-안남숙(역), 김치근-이철민(역), 이웅-강필호(역), 김일영-안영만(역), 이백수-송병희(역), 송관섭-천재일(역), 신태선-김영호(역), 윤방일-임동섭(역), 안복록-의사(역), 강정애-남숙 모(역), 김복진·김신재·윤기연-남숙의 학우(역), 광장액-여급사(역), 서항석-주례(역), 유치진-신부(역), 정래동·이강성·이백산·김정혁·유영삼-이사(역), 기타 엑스트라 600여 명.

영화 『애련송』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그 필름은 발

66) 『本社 當選 映畫小說 “愛戀頌” 撮影 開始』, 『동아일보』, 1937. 10. 29.

67) 『本社의 製作 後援 下에 劇研映畫 “愛戀頌” 遂完成』, 『동아일보』, 1939. 6. 25. 『김유영 연보』(『향토문화연구』제13호, 향토문화연구회, 2010, p.118)에는 『화륜』이 1939년 9월에 개봉되었다고 잘못 적혀 있다. 김종원도 『애련송』이 1939년 9월 10일에 개봉되었다고 잘못 썼다. 김종원, 앞의 글, p.287.

68) 『本社 當選 映畫小說 “愛戀頌” 撮影 開始』, 『동아일보』, 1937. 10. 29. 『全發聲 八卷物 劇研 會員 總出動』, 『동아일보』, 1937. 10. 29. 『“愛戀頌” 錄音次 渡東』, 『동아일보』, 1938. 11. 1. 『本社의 製作 後援 下에 劇研映畫 “愛戀頌” 遂完成』, 『동아일보』, 1939. 6. 25. 『關係者 一人一言』, 『동아일보』, 1939. 6. 25. 『“愛戀頌” 製作 關係者 一人一言』, 『동아일보』, 1939. 6. 30.

69) 김수남은 최금동의 『애련송』을 김유영이 각색했다고 잘못 썼다. 김수남, 앞의 글, p.148.

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애련송』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먼저, 이효석이 최금동의 영화소설 『애련송』을 각색 하여 쓴 시나리오 『애련송』을 읽는 방법이 있다. 다행히 이효석 전집에 시나리오 『애련송』이 실려 있다⁷⁰⁾. 아니면, 당시에 영화 『애련송』을 관람한 사람들이 적은 『애련송』의 줄거리를 읽는 방법도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문체나 어조를 통해 필자가 영화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해, 영화 『애련송』에 대한 최초의 수용 텍스트[rezeption text]라 할 수 있는 신문기사에 적힌 줄거리를 읽어 보기로 한다.

해당화 꽃피는 몽금포 해변에 여름방학을 이용하야 놀러간 Y여자 전문학교 음악과 학생 안남숙은 거기서 이철민이라는 청년 음악가와 알게 되어 나중에는 두 사람 사이에 첫사랑의 실마리가 매듭을 짓게 된다./ 여름방학도 끝날 무렵 돌연 남숙에게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온다./ 남숙의 아버지 안영만은 평양 청구중학교 교장으로 이십년 동안 그 학교를 경영하여 오는 터인데 최근에 그 학교가 경영난에 빠지자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고자 애쓴 나머지 드디어 병들어 눕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무주임은 경성에 올라와 각 방면으로 활약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최후에 청년 부호 강필호와 교섭이 되게 된다. 강필호는 안해와 갈려진 후 후취를 물색하는 중인데 얼마

70) 이효석, 『애련송』, 이효석전집 간행위원회 편,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 6』, 창지사, 2003, pp.130-166. 이효석의 시나리오 『애련송』은 『영화보』 제2집(1937. 12)에 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보』 제1집(1937. 11)에 “映畫報 第二輯엔 李孝石 씨나리오 愛戀頌(劇研 製作)을 全篇 掲載합니다”란 예고문이 있다.(『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3-영화·연극잡지』, 소명출판, 2013, p.33) 한편, 여운희는 영화 『애련송』을 보기 전에 “모잡지”에서 이효석의 시나리오를 읽었다고 썼다(여운희, 『映畫 “愛戀頌”의 印象』, 『매일신보』, 1937. 7. 2). 그가 말한 “모잡지”는 『영화보』 제2집일 가능성이 크다. 『영화보』 제2집은 발간된 사실만 확인된다(『新刊紹介』, 『동아일보』, 1937. 12. 28).

전에 남숙의 아름다운 자태를 교내 음악회에서 보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 구혼한 길을 찾던 차이라 청구중학교에 대한 원조를 승낙하는 동시에 교무주임을 통하여 남숙에게 구혼한다. 강필호는 본대부터 교육 사업에 돈을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이니, 사랑도 얻고 사업도 하게 되면 그 우에 더 이룰 데 없다는 의미에서 겸하여 구혼한 것이었지만, 교무주임은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원조를 승낙한다는 것으로 알고 안 교장에게 그러케 권한다. 안교장은 자기의 외딸 남숙을 후취로 줄 수는 없다고 반대한다./ 철민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음악공부를 계속하러 동경으로 건너갔다. 굳은 약속을 하고 철민을 보낸 뒤에 필호로부터의 구혼이 잇는 줄을 알은 남숙은 혼자서 괴롭기 한이 없었다./ 청구학교에서는 여러 번 이사회를 열고 유지 방침을 강구하였으나 별반 신통한 길이 나서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청구학교는 그 이십년 빛나는 역사의 마조막 날을 맞이하지 안하면 안되게 되었다./ 그래서 안교장은 남숙에게 청구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는 수 없으니 기어코 강필호와 결혼하여 달라고 애원한다. 남숙은 이 아버지의 이 애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남숙은 최후의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단념해 달라고 철민에게 최후의 편지를 썼다./ 청구중학교는 갱신의 000000친다. 이어 강필호와 안남숙의 결혼의 날이 왔다./ 남숙의 편지에 분개하여 뛰어난 철민은 바로 결혼식장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벌써 식은 끝난 후이었다. 사랑에 배반을 받고 희망을 일어버린 철민은 타락하여 매일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남숙 역시 본의 아닌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나서 드디어는 수도원으로 종적을 감추고 만다. 강필호는 그제야 남숙에게 철민이라는 애인이 잇는 줄을 알고 자기의 결혼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었다는 것을 뉘우치는 동시에 남숙의 아름다운 히생을 더욱 귀히 여겨 이철민을 찾아 만나서 이후도 전재산을 바쳐서 청구학교를 원조하겠다는 말로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하자 철민은 또 철민대로 여지껏 품고 있던 남숙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남숙을 구하려 수도원을 향하여 봄의 열차에 몸을 실는다./ 그러나 수도원의 남숙은 고민 끝에 드디어 다시 일지 못할 병을 얻어 철민이 수도원에 당도하기 전에 죽임의 세계로 가고 만다.⁷¹⁾

동아일보사는 「애련송」의 개봉을 앞두고 그 특색과 장점을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일, 극연좌(劇研座)의 제작, 본사의 제작 후원 이것이 첫째의 특색으로서 모든 장점이 여기서 우선 규정된다.

이, 지금까지 백여 개로써 헤이는 조선 영화는 대개가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의 생활면을 그려 왔었지만 「애련송」은 중류 이상의 가정과 사회를 배경으로 극적 사건을 취급한 것.

삼, 평양 대동강가의 고전색과 몽금포 해안의 우아한 사구(砂丘)와 금강산의 절승 이외에 경성 근처의 여러 경치와 창경원, 부호 고(故) 김종익(金鍾翊) 씨 저택 낙산장(駱山莊), 고(故) 박영철(朴榮喆) 씨 저택의 내부, 조선호텔, 부민관 천향원, 본사 강당 등에서 실지로 촬영하여 화면의 조선적 화미(華美)를 다한데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한 것.

사, 조선 영화계의 최고 인기 배우 문예봉(文藝峯) 양을 비롯하여 극연좌의 일류 연기자가 총 출연한 것, 그것보다도 일류 문단인, 일류 음악가 전문학교 교수 신문 잡지의 진보적 저널리스트가 혹은 뒤통수에 관계하고 특별출연을 한 것이 단연 전례 없는 이채인 것.⁷²⁾

이런 광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화 「애련송」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⁷³⁾ 평자들은 자본의 부족과 기구의 미비 등 영화 제작의 난점들을 인정하면서도 원작·각색·연출·연기의 미흡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⁷⁴⁾

71) 「本社の製作 後援 下에 劇研映畫 “愛戀頌” 遂完成」, 『동아일보』, 1939. 6. 25. ('0'은 자료가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글자임.) 여운희, 위의 글에도 「애련송」의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다.

72) 「本社の製作 後援 下에 劇研映畫 “愛戀頌” 遂完成」, 『동아일보』, 1939. 6. 25.

73) 여운희, 앞의 글. 김태진, 「“愛戀頌” 映畫評과 作品 價値를 檢討하면서(1-3)」, 『동아일보』, 1939. 7. 11·12·14.

74) 「애련송」은 국내에서 악평을 듣는 가운데 일본에서 개봉되었다. 「朝鮮 映畫 繼續 封切, 東京·大阪에서 活躍」, 『동아일보』, 1939. 7. 27. 「朝鮮映畫가 繼續 內地에서

그러나 『애련송』은 영화와 문학의 유기적 종합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지향하며 창작된 원작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김유영이 처음으로 만든 상업 영화이자 토키(talkie)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유영은 『애련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처음으로 만든 토-키-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에 나의 십년 은인(隱忍)의 정력(精力)을 경주하였다. 기구의 미비, 조직의 불완 등을 타하려면 얼마든지 타하겠고 이 작품에 흠이 있다면 대부분 그 탓이라 하겠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애련송만이 아니라 조선 영화가 현재 노혀 있는 처지가 그런 것이니,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작품이 조선 영화의 현재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자부하는 바이다.⁷⁵⁾

김유영은 1939년 11월 20일부터 새 영화 『수선화(水仙花)』 촬영에 착수했다.⁷⁶⁾ 『수선화』의 크랭크인을 알린 신문 기사에는 『수선화』는 조선영화 주식회사의 세 번째 작품으로 남일로의 『처녀호(處女湖)』가 원작이며 각색은 이익이, 카메라는 황운조가 맡고 문예봉, 김일해, 김신재, 김복진 등이 연기한다고 적혀 있다.⁷⁷⁾ 그런데 그 기사에서 『수선화』의 원작으로 언급된 남일로의 『처녀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문장』 1939년 11월호에서 김유영이 쓴 동명의 시나리오를 찾아볼 수 있다. 『문장』에 실린 김유영의 시나리오 『처녀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작자의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를 촬영대본(콘티뉴티)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너무도

上映中, 『매일신보』, 1939. 7. 27.

75) 『關係者 一人一言』, 『동아일보』, 1939. 6. 25.

76) 『朝映 “水仙花” 二十日부터 크랭크』, 『동아일보』, 1939. 11. 16. 『김유영 연보』(『향토문화연구』제13호, 향토문화연구회, 2010, p.118)에는 김유영이 1939년 10월에 『수선화』의 연출을 시작했다고 잘못 적혀 있다.

77) 『朝映 “水仙花” 二十日부터 크랭크』, 『동아일보』, 1939. 11. 16.

시급하게 쓰게 되어서 ‘미정고(未定稿)’를 발표함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익(李翼) 군의 조력이 컸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작자의 망언(妄言))” 김유영이 시나리오 『처녀호』를 썼다는 사실과 『처녀호』 끝에 부기된 작가의 말을 근거로 삼아 『수선화』는 김유영의 창작 시나리오 『처녀호』를 영화화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⁷⁸⁾

김유영은 『수선화』를 촬영하던 중 1940년 1월 4일 지병인 신장염이 악화되어 타계했다.⁷⁹⁾ 『수선화』는 조감독들에 의해 완성되었다.⁸⁰⁾ 1940년 8월 9일에는 『수선화』 시사회가, 1940년 8월 13일에는 경성보충극장에서 김유영 주도 『수선화』 유료 시사회(로드쇼)가 열렸다. 그리고 『수선화』는 1940년 8월 21일 성보극장에서 개봉되었다.⁸¹⁾

현재 영화 『수선화』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유영의 시나리오 『처녀호』를 읽거나 당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적어 놓은

78) 김종원도 영화 『수선화』가 김유영의 시나리오 『처녀호』를 영화화한 것이라고 썼다. 김종원, 앞의 글, p.288.

79) 『“水仙花” 監督 金幽影 氏 重態』, 『동아일보』, 1939. 12. 15. 『消息』, 『동아일보』, 1940. 1. 5. 『映畫監督界 重鎮 金幽影氏 永眠』, 『매일신보』, 1940. 1. 5. 이형우는 김유영이 1939년 11월 25일에 사망했다고 잘못 썼다. 이형우, 앞의 글, p.240. 그런가 하면, 『향토문학연구』 제13호에 실린 『김유영 연보』와 이강언의 글에는 김유영이 1940년 11월 25일에 타계했다고 잘못 적혀 있다.

80) 김종원, 앞의 글, p.289. 이강언은 김유영이 사망한 뒤 조감독 민정식이 『수선화』를 1941년에 완성했다고 썼다. 이강언, 앞의 글, p.72. 그런데 민정식이 완성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수선화』가 1941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오류이다.

81) 『“水仙花” 城賣서 로드쇼』, 『매일신보』, 1940. 7. 23. 『“水仙花” 封切, 八月 第四週』, 『매일신보』, 1940. 8. 3. 『水仙花 完成 金幽影 追悼 有料 試寫會』, 『동아일보』, 1940. 8. 11. 『향토문학연구』 제13호에 실린 『김유영 연보』와 이강언의 글에는 김유영 주도 『수선화』 유료 시사회가 1941년 7월에, 『수선화』 시사회가 1941년 8월에 열렸다고 잘못 적혀 있다. 김종원은 김유영 주도 『수선화』 유료 시사회가 1940년 8월 14일에 열렸고, 『수선화』는 1940년 8월 25일, 경성보충극장에서 개봉되었다고 잘못 썼다. 김종원, 앞의 글, p.289.

줄거리를 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해 안중화가 회고담에 적어 놓은 「수선화」의 줄거리를 읽어 보기로 한다.

영남 어느 촌락. 산천이 수려한 그 촌락은 김씨 일가가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 앞에는 푸른 물이 맑게 핀 호수가 있는데, 그 앞을 혼례의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으니, 마상(馬上)의 신랑은 열세 살된 김씨 문중의 외독자(外獨子)였고, 사인교(四人轎) 속의 신부는 열 일곱 살 된 유씨였다./ 그러나, 이들의 결합은 이년 후에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매 종말을 고하게 되고, 세월은 흘러 그로부터 이십년이 되었다. 유씨는 그 시모와 더불어 쓸쓸한 공궁(空閨)을 지켜 가고 있었다. 외로움에 견디다 못한 유씨는 동길이라는 원척 아이를 양자로 맞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쓸쓸한 웃음일망정 웃을 수가 있었다./ 마을의 유일한 학원인 소학교는 본시 유씨의 시아버지가 세운 사립 학교였지만, 그가 죽은 후로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줄곧 방치 상태에 있었다./ 어느 날, 동길의 종형(從兄)이 서울에 있는 그의 친구인 백 선생을 불러, 그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케 한다. 백 선생은 그 마을 동석의 집에 집을 풀게 되는데, 동석은 동길이보다도 근척(近戚)이었으나 저능아인 탓으로 양자가 되지 못한 아이였다./ 이윽고, 한때 잠잠하던 문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들이 유씨네 재산에 눈독을 들인 때문이었다./ 동석의 아버지는 고집통이 영감이었다. 백 선생이 자기 집에 유숙하게 되자 동석을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데, 백 선생이 모자라는 동석이보다도 동길을 더 귀여워하매 동석이네 식구들은 마침내 엉뚱한 계락을 꾸미게 된다. 백 선생과 유씨가 좋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동석의 어머니는 유씨의 집 하인인 삼술을 달래고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는 등하며 계획을 진행시킨다. 어리석은 삼술은 이 사실을 석매에게 알리게 된다. 석매는 필쩍 뚫다./ “너 그따우로 하문 내가 니 미워할까다.”/ 삼술은 대변에 참회한다./ 석매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유씨는 서글픈 웃음만을 짓는다./ 이튿날, 호숫가에는 유씨의 시체가 떠 있었다. 유씨의 유서를 석매에게서 전해 받은 백 선생은 그녀의 슬픈 유서이자 연서를 펴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⁸²⁾

『수선화』에 대한 당시 평문으로 김정혁이 김유영 추도 시사회에 참석하고 나서 쓴 것으로 보이는 『서정과 향토미-김유영 유작 “수선화”』(『매일신보』, 1940. 8. 15)가 있다.

4. ‘영화 기술자’의 길

이상에서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별인 활동을 기술하였다. 이제, 그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할 차례다.

김유영은 본질적으로 영화 기술자였다. 김유영은 계급주의를 견지하고 있었을 당시에 자신은 ‘영화 기술자’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화륜 논쟁’ 당시, 그는 “계급적 기술자”로서 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데까지든지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의 전선에서 강하고도 굳센 생명을 아끼지 안코 에네르기가 있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행동은 영구불멸일 것”이라고 말했다.⁸³⁾ 그런가 하면, 김유영은 계급주의를 감추거나 버려야 했을 때에도 자신은 ‘영화 기술자’라고 말했다. 그는 신건설 사건 1회 공판에서 “문예에도 예술에도 실천적 리론은 갖지 안하였다 다만 영화 기술자로서 활동하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별인 활동은 그가 ‘계급주의에 봉사하는 영화 기술자’에서 ‘가치중립적인 영화 기술자’로 변모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의미화할 수 있다. ‘전향 서약’은 그 변화의 기점이었다. 김유영은 전향을 서약하고 석방된 뒤 타계할 때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신건설 사건 전처럼 프롤레타리아영

82) 안중화, 앞의 책, pp.253-254.

83) 김유영, 『徐君의 映畫批評을 再批評 (中)』, 『조선일보』, 1931. 4. 21. ‘화륜 논쟁’에 대해서는 줄고, 『김유영론 1』 참조.

화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향을 서약한 대가로 석방된 상태 즉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게다가 1936년 12월 공포·시행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그를 법적으로 더 구속했을 가능성이 있다.⁸⁴⁾ 또, 당시 카프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고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 진영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였다. 김유영이 법적 구속을 무시한다고 해도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유영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도 않았다.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을 재개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도 않았던 김유영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행보는 ‘가치중립적인 영화 기술자’로의 선회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김유영은 계급주의를 견지했을 때는 계급주의를 전파하는 수단인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쓸 것인지 고민했고, 계급주의를 감추거나 버렸을 때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의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련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에 머물렀다. 그가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벌인 활동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덧붙여, 김유영이 전향을 서약한 뒤 다른 인물들처럼 친일·반민족의 길

84) 김영희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행규칙 총칙 제1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본인의 사상전향을 촉진 또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 법안이 사상전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내세워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언도받고 혹은 가출옥을 허락받은 자와 만기 출옥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집행정지·집행면제를 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대상자 중 여전히 ‘불온사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에 대해서는 전향하도록 추진하였고, 완전 전향자에 대해서는 전향의 확실한 보증을 받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향했어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향자를 계속 감시하고, 그들이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토록 하는, 이전에 비해 법적 구속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김영희, 앞의 책, p.187.

로 들어서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애가 그럴 겨를 없이 빨리 소진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가치중립적인 기술자로서 영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련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함으로써 서둘러 변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영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련하는 일은 자본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김유영과 당시 영화 자본의 관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영화감독이자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가였던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벌였던 활동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논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김유영은 1934년 5월 조선영화제작연구소 창립에 동참하면서 카프에 복귀했고 구인회에서 탈퇴했다. 그는 카프의 슬로건 아래서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전문가들과 함께 각본 작성 등 영화 제작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구상을 조선영화제작연구소를 통해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유영은 신건설 사건에 연루되어 1934년 8월 검거되었다. 그 뒤 그는 지지(遲遲)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전향을 서약한 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35년 12월 석방되었다. 석방된 뒤 김유영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영화 잡지 출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영화 연출에 혼신을 다했다. 그는 「애련송」에 이어 「수선화」를 연출하던 중 1940년 1월 4일 지병인 신장염이 악화되어 타계했다.

김유영이 카프에 복귀한 이후 타계할 때까지 벌인 활동은 그가 전향 서약을 기점으로 하여 계급주의에 봉사하는 영화 기술자에서 가치중립적인 영화 기술자로 선회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유영

은 계급주의를 견지했을 때는 계급주의의 전파 수단인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쓸 것인지 고민했고, 전향을 서약하며 계급주의를 감추거나 버렸을 때부터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의 영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세련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에 머무르려 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유영, 『처녀호』, 『문장』 제1권 10호, 1939. 11.
- 이효석, 『애련송』, 이효석 전집 간행위원회 편,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 6』, 창미사, 2003.
- 최금동, 『애련송』, 영화진흥공사 편, 『한국 시나리오 선집』, 1982.
- 『동아일보』
- 동아일보 기사DB-미발행일 정보, dongA.com, <http://www.donga.com/news/dongadb/dongailbo_db_25.html>, 검색: 2015. 6. 29.
- 『매일신보』
- 『영화보』 제1집, 1937. 11.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3-영화·연극 잡지』, 소명출판, 2013, pp.1-102.)
- 『조선일보』
- 『조선중앙일보』
- 『중외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 『김유영 연보』, 『향토 문학 연구』 제13호, 향토문학연구회, 2010, pp.116-119.
- 권영민,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촉발된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의 전말, 공판 기록 최초 공개』, 『문학사상』, 1998. 6, pp.39-77.
- _____,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pp.13-427.
- _____,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98, pp.346-400.
- 김수남, 『김유영의 영화예술 세계-조선 카프 영화의 개척자』, 『청예논총』 제15집,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8, pp.137-152.
-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77-226.
- 김종원, 『유실된 카프 영화의 상징-김유영론』, 『예술논문집』 제45호, 대한민국예술원, 2006, pp.257-294.
- 백 철,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pp.300-330.
- 안정숙,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33, 김유영』, 스크린에 쓴 일제하 노동자 계급의 삶과

- 투쟁], 『한겨레신문』, 1990. 7. 20.
- 안종화, 『한국영화측면비사』, 현대미학사, 1998, pp.252-260.
- 이강언, 『김유영의 삶과 영화 세계』, 『향토 문학 연구』제13호, 향토문학연구회, 2010, pp.63-73.
- 이두현 · 유민영 편, 『극예술연구회 연보(1931-1939)』, 『연극평론』5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1971, pp.63-80.
- 이수일, 『일제말기 사회주의자의 전향론-인정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제7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95-134.
- 이형우, 『김유영의 생활 연보』, 백기만 편, 『씨뿌린 사람들』, 사조사, 1959, pp.201-244.
- 이효인 · 김정호, 『카프 영화인 서광제의 전향 논리 연구』, 『한민족문화연구』제30집, 2009, pp.239-268.
-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 논리 연구-서광제, 박완식을 중심으로』, 『영화연구』45호, 한국영화학회, 2010, pp.385-421.
- _____, 『카프의 김유영과 프로키노 사사겐주(佐々元十) 비교 연구 -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론을 중심으로』, 『영화연구』57호, 한국영화학회, 2013. 9, pp.323-360.
- 현순영, 『구인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30-59.
- _____, 『김유영론 1-영화계 입문에서 구인회 결성 전까지』, 『국어문학』제54집, 국어문학회, 2013. 2, pp.427-465.
- _____, 『김유영론 2-구인회 구상 배경과 결성 의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6, pp.383-404.
- 채 백, 『신문』, 대원사, 1998, pp.140-143.
- 리차드 H. 미첼 저 · 김유식 역,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pp.1-274.

Abstract

Kim Yu yeong III

- From returning to KAPF to film *Suseonhwa* -

Hyeon, Sun–Yeong

This is the final report of research that traced the activities of Kim Yu yeong(1908–1940), film director and proletarian film activist who worked during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Previous papers described Kim's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from his entrance into the film world to his withdrawal from Guinhoi(Nine People Club) and discussed their meanings. Following them, this study described his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from his withdrawal from Guinhoi to his death and discussed their meaning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Kim Yu yeong returned to KAPF through his participation in the foundation of Chosun Film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in May 1934, and withdrew from Guinhoi. Through Chosun Film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he seems to have tried to implement his plans to research filmmaking such as screenplay and to produce films under the slogan of KAPF together with experts who had classist ideology. Involved in the Singeonseol incident, however, Kim was arrested in August 1934. After a long process of trial, he was sentenced two year jail with execution suspended after three years, and released in December 1935. After released, Kim Yu yeong was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In particular, he made continuous efforts to publish a film magazine and put all his energy into the production of movies. Then, while directing *Suseonhwa*(水仙花. Narcissus) following *Aeryeonsong*(愛戀頌. Song of Compassion), he died of his chronic disease nephritis on January 4, 1940.

Kim Yu yeong's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from his returning to KAPF to his death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e process of his turning from a film technician committed to classism to a value neutral film technician,

taking his pledge of conversion as a turning point. When Kim Yu yeong was holding classism, he deliberated on how to develop and utilize film technology as a means to propagate classism, but after abandoning classism through the pledge of conversion, he tried to stay in the position for seeking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to develop and refine film technology as a value neutral object.

Key Word : Kim Yu yeong, Chosun Film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KAPF, Singeonseol incident, conversion, *Yeonghwabo(Cinema News)* *Aeryeonsong(Song of Compassion)*, *Suseonhwa(Narcissus)*

현순영

소속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전자우편 : hsy7171@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